

완도군, ‘임대료 월 1만원 청년 상가’ 개소

상가계약 2년 1회 2년 추가 연장
구도심 지상 4층 빈상가 리모델링
디저트 판매점·여행사 등 입주
‘청년 창업 중심지’ 자리매김 총력

완도군에 디저트 판매점, 여행사, 수산물 전문 플랫폼 등 7개 업체가 입주한 ‘임대료 월 1만원 청년상가’가 문을 열었다.

23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청년상가인 활력을 찾는 ‘완생’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김현철 완도부군수, 박성규 완도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군 의원, 입주대표, 주민 등이 참석해 청년 상가의 개소를 축하했다.

개소식은 사업 경과보고와 ‘완생’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는 테이프 커팅, 기념 촬영에 이어 상가 라운딩, 입점 업체 음식 시식 등을 통해 상가 대표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완도 청년상가 ‘완생’은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으로 15억원을 투입해 완도읍 구도심에 위치한 지상 4층 짜리 빈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했다.



완도군에 임대료 월 1만원의 청년 상가 ‘완생’이 지난 17일 문을 열었다.

완도군 제공

상가는 점포 7실, 휴게 공간 1실로 구성됐다.

상가에는 디저트 판매점인 ‘도스마르’, 종합 여행사인 ‘여행 산책’, 커피 내리는 엔지니어, 수산물 전문 플랫폼인 ‘어촌의 달인’, 피부 미용샵인 ‘플로 뷰티’, 굿즈 제작 업체인 ‘다누림 샵’, 웨딩

스냅을 촬영하는 ‘바다 곶 스냅’ 등이 입주했다.

상가 임대료는 월 1만원이며 상가 계약 기간은 기본 2년, 1회에 한 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군은 청년상가 개소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철 완도부군수는 “청년상가가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완생이 청년 창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e커머스 디지털 창업 교육 강진군, 실무 역량 강화

강진군은 지난 17일 ‘2024년도 하반기 e커머스 키움 패키지 교육’을 개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e커머스 관련 창업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자등록부터 온라인 마케팅까지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하반기 교육 과정에는 7명의 교육생이 선발되어 3개월 동안 총 30회, 매주 3~4회씩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다. 자사몰 개설, 상품 등록, 카메라 촬영 및 편집, AI 활용 마케팅 등 이커머스 운영에 필수적인 기술을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해, 교육생들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된다.

개강식에서는 상반기 교육 수료생들의 초록민음강진군과 네이버 쇼핑몰에 입점해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의 창업 성공 사례와 함께 교육 커리큘럼을 소개해, 교육생들에게 창업 동기를 부여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외지인들에게 월 임대료 1만 원에 숙소를 제공함으로써 타지에서 온 예비 창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넓혔다.

교육생들은 강진군의 다양한 귀촌 및 창업 지원 정책을 체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창업과 귀촌을 결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 이후에도 지역 내 창업 생태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진=김윤복 기자

백양뮤직페스티벌 개최

장성군 백양사

장성군 백양사에서 열리는 산사음악회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26일 이틀간 펼쳐지는 올해 산사음악회는 ‘백양뮤직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앞세울 만큼 흥미로운 공연들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다.

23일 장성군에 따르면 음악회가 열리는 곳은 백양사 성보박물관 앞 특설무대다. 먼저 첫날인 25일 오후 5시부터 국악과 플라멩코 음악을 넘나드는 ‘소리께떼’, 9인조 라틴재즈밴드 ‘코팅그룹’, 무가(巫歌)에 다양한 장르의 리듬을 결합한 음악을 들려주는 ‘추다해차지스’가 관객과 만난다.

26일에는 포르투갈 대중음악 ‘파두’와 한국인의 ‘한’을 결집한 독특한 음악을 선사하는 ‘소뉴’, 민요와 플라멩코가 만나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토케토리’의 무대가 기다린다.

마지막 순서는 ‘뉴진스’의 공연이 책임진다. 불교 교리를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에 담아내 ‘흥’을 돋운다. 아이돌그룹 ‘뉴진스’를 연상시키는 재미있는 법명이지만, 조계종 수계식을 통해 정식으로 인정받은 이름이다.

상계루 인근에 마련된 즐길거리도 다채롭다. 파크골프 퍼팅게임, 북하면 단감을 활용한 게임과 풍물 등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기로미술협회 전시도 준비된다. 장성=유봉현 기자

신안군, 소금박람회 연다

내달 1~3일 여의도 한강공원

신안군은 오는 11월 1부터 3일 까지 3일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천일염은 세상의 빛이다’라는 주제로 ‘2024 소금박람회’를 전남도 및 신안군·영광군이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소금박람회는 3가지 테마존으로 운영되며 기존의 박람회 형식에서 벗어나 한강공원에서 개최해 소비자와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천일염의 우수성 홍보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주제존에서는 천일염의 역사와 신안군 홍보관 운영 그리고 다양한 천일염 제품 전시 및 판매가 진행된다. 힐링·체험존에서는 소금사우나, 족욕체험을 통해 건강 힐링을 체험할 수 있으며 스탬프투어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천일염 및 소금빵을 제공한다. 오락존에서는 소금데드리프팅, 소금발 어린이 놀이터,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박람회는 김장철을 맞아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신안천일염 생산단체와 관내 업체들이 참가해 판로개척은 물론 다양한 신안천일염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NS홈쇼핑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신안천일염 활성화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다양한 소비자와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한강공원에서 소금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많은 분들이 신안천일염을 접하여 우수성을 알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소금박람회가 신안천일염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해남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들이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주거환경 개선 활동

해남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올해 저소득층 448가구에 출동해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하는 등 든든한 복지 지킴이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다.

23일 해남군에 따르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14개 전 읍면에 편성되어 어려움에 처한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고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정서 지원사업부터 방

충망 교체, 보일러 수리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전문 봉사까지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가구가 많아 긴급하게 피해복구와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읍·면에서 복지기동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복구활동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전라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 추진할 정도로 민·관·지역사회 협업과 사업성과가 뛰어난 지역복지 사업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군에서도 이들의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함평군 옥동마을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최대 5억원 지원

함평군은 대동면 옥동마을이 2024년 하반기 전남도 유기농 생태마을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는 유기농업 확산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육성하고 있다.

선정 기준으로는 마을 내 10호 이상의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며 친환경 인증면적이 10ha 이상, 유기농 인증 면적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과수·채소 작물의 경우는 농가 5곳 이상 인증을 받은 면적이 1ha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옥동마을은 연산강 상류 고막천이 흐르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마을로, 마을 내 35농가가 33ha의 면적에서 유기농 인증(94%)을 받았다.

주민들은 종자 구입, 육묘, 방제 등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 돌담길과 한옥 정원 또한 잘 보전돼 있다.

옥동마을은 이번 선정으로 최대 5억원

을 지원 받는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과 4000만원의 활성화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윤상덕 옥동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친환경 보존과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이라며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해 계기로 더 많은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보하고, 농촌관광 명소로 마을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군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을 통해 유기농업 정착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촌이 지닌 가치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전남일보 구독
www.jnilbo.com